

NEWS

기관 · 단체 소식



농림부

박홍수 장관, 닭고기 소비촉진 행사 참석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지난 11월 21일 국회 앞 마당에서 열린우리당 주관으로 개최된 닭고기 시식 및 판매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모이자, 닭 먹자’ 라는 슬로건 아래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농가와 치킨외식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닭 소비 촉진 나눔한마당’ 행사로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을 비롯, 박홍수 농림부 장관과 여당 의원들이 대거 참가해 요리된 닭을 판매하고 시식하며 우리나라 닭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했다.

행사에 참석한 박 장관은 “닭 시세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농촌 현실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가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인 만큼 걱정 말고 닭고기를 소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캐나다산 조류, 가금종란 및 식용란 등 수입검역 중단

농림부는 최근 캐나다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

러스(H5형) 확인과 관련하여 캐나다산 조류, 가금 종란 및 식용란 등의 우리나라로의 수출선적을 잠정중단 하도록 캐나다 정부에 요청하였으며, 관련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검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British Columbia) 오리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가 확인되었음을 알려 왔으며, 우리정부는 저병원성 AI로 결정하게 된 과학적 근거자료 및 세부적 방역조치 사항 등을 캐나다정부에 요구했다.

농림부는 캐나다내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예방적 차원에서 수입검역 중단조치를 취했으며, 캐나다로 여행하는 여행자들에게는 발생지역의 방문을 자제하여 줄 것과 닭고기 등 관련 물품을 국내로 가져오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제24차 OIE 아·태 지역회의서 AI·BSE 등 권고사항 채택

농림부는 지난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 마포 소재 홀리데이인서울 호텔에서 개최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제24차 OIE 아시아, 극동 및 대양주위원회 회의에서 조류인플루엔자와 BSE에 대한 4가지 권고사항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OIE 사무총장인 베르나르 발라(Bernard Vallat), 대한민국 수석수의관(Chief Veterinary Officer)인 농림부 김창섭 가축방역과장, 19개 OIE 회원국과 4개 비회원국의 정부 대표와 6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아·태 지역내 가축방역상황,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나 소해면상뇌증(BSE, 광우병)과 같은 주요한 신종 인수공통전염병의 발생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HPAI의 경우 아시아 지역내 여러 국가에서 상재화 되었고, 통제되지 않은 동물의 이동 뿐 아니라 질병전파의 주요한 위협이 되고 있는 철새의 이동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전파가 확산되고 있음을 주지했다.

발라 사무총장은 “동물의 질병방역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은 동물 자체로부터 바이러스를 감소·박멸시키는 것”이라는 강조하고 “동물로부터 외부로 배출되는 바이러스 양이 많을 수록 그 바이러스가 변이되어 인간에게 유행병(pandemic)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의 닭고기 소비기피와 관련하여 “HPAI가 발생하는 국가라도 최소 70℃의 심부온도로 조리된 닭고기와 계란을 섭취할 경우 절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죽거나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조류를 식품이나 동물사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회의기간 중 HPAI 방역과 관련 조기검색을 위한 예찰 활동은 강화하되 사람의 감염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개진되기도 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들은 조류인플루엔

자와 BSE 등에 대하여 다음의 권고사항을 채택했다.

- 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방역을 위해 재래 닭이나 야외 사육 또는 소규모 농가에 대한 교육이나 재정적 지원 등 방역상황 개선
- ② HPAI 비발생국이라도 발생을 대비한 적절한 농가보상기금, 방역인력 및 물적자원을 포함한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경계태세 유지
- ③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은 국가라도 OIE 동물위생규약에 따라 자국내 광우병 상황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
- ④ 광우병 발생국가 또는 광우병 위험을 무시할 수 없는 국가에서 뼈 없는 살코기를 수출하는 때에는 해당국이 특정위험물질(SRM)의 제거와 도축·가공과정 중 오염방지를 보증

2005년 하반기 축산물 위생·안전성 강화 전국 순회교육

농림부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축산농가와 도축·가공·보관·운반·판매단계 등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SSOP)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중심으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금번 교육은 2005년도 상반기 교육에 이어 실시하는 것으로, 수도권(11.21)·충청권(11.22)·호남권(11.23)·영남권(11.24)·제주권(12.2) 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됐다.

교육 대상은 소·돼지·닭·오리 등 축산농가, 시·도와 시·군 축산물위생 담당 공무원, 농협 등 관련기관·단체(협회) 소속 축산물위생 담당자, 도축업·집유업·가공업(유가공업, 식육가공업, 알 가공업) 영업자, 시·군·구 교육청 학교급식 담당관 등 1,500명(권역별 300명)이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① 축산농가가 지켜야

할 밀사방지 등 가축사양·관리방법, 항생제 등 잔류물질의 식육 내 잔류방지법(휴약 기간 준수, 후기사료급여 등), 사육단계 HACCP적용 추진 계획(2006년 돼지부터 적용) ② 도축·가공·보관·운반·판매단계 종사자가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SSOP)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③ 소비자가 바라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방법과 국내축산물의 소비 활성화 방안 등이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 통과

농림부는 내년부터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HACCP)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된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상배)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안에는 농림부 장관은 HACCP기준의 제정 및 작업장 적용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HACCP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 운영비를 지원토록 했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이미 내년 예산에 20억원을 확보, HACCP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또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안에는 닭·오리고기 등의 축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판매토록 했고,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고 있는 축산물수입판매업신고를 농림부 장관에게 하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 상한액을 1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인상토록 했다.

위해 우려가 있는 축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한 위해요소를 평가하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축산물의 경우에는 위해 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판매·보관·운반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2007년부터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 시행

12월 1일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07년 1월부터는 식육을 조리·판매하는 음

식점에서도 그 원산지 및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 12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개정법률안'을 지난 5년여간을 끌어온 끝에 드디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는 연면적 300㎡ 이상의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판매할 때는 쇠고기의 원산지과 종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정부는 1년여의 유예기간과 2007년부터의 부

분시행 결과를 종합해 쇠고기 외에도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으로 범위를 넓혀가고 해당업소 규모도 전 업소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17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30일 법사위를 거쳐 예상보다 빠른 1일 본회에 상정돼 반대 1표를 제외한 참석 의원 전원 찬성해 법안의 정당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보건복지부

닭고기 안전성 홍보 시식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1일 과천청사(2동건물 1층)에서 (주)TS해마로 협찬으로 닭고기 시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의 인체감염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주)TS해마로가 공동으로 기획하여 마련한

것으로 이날 행사에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하여 직원들과 함께 시식행사를 가지며 닭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했다.

이 행사를 위해 (주)TS해마로측은 복지부 직원을 비롯한 청사 전경들을 위해 600인분의 닭고기를 준비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05년 수의과학기술개발 연구사업 연말평가 실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강문일 박사)은 1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2005년도에 수행한 연구 실적(69과제) 및 2006년도에 수행할 신규연구과제(34과제) 등 총 103개 과제에 대한 평가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농림부 관계관, 대학, 유관기관, 산업계를 포함하는 각계 관련분야 전문가가 평

가위원으로 참석하여 축산농가, 소비자 등 수요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이고 심도있는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동물질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등의 진단, 치료, 예방 등 질병피해 최소화를 위한 55과제, 해외악성전염병 유입방지, 가축전염병 관리 및 방제프로그램 개발 등 22과제 그

리고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성분기준, 잔류 및 독성평가,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연구 등 26과제를 전문분야별로 평가한다.

12월 5일(월)에는 세균 및 병리분야의 과제를, 12월 6일(화)에는 바이러스 및 조류질병분야, 12월 7일(수)일에는 축산물안전성 및 동물약품분야 그리고 12월 8일(목)에는 해외전염병, 역학분야의 과제를 평가한다.

축산물안전관리추진 및 명예감시원 감시활동 설명회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11월 21일 검역원 대강당에서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축산물명예감시원 중점감시사항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 소비자 교육원을 비롯한 8개 소비자 단체의 업무담당자 및 명예감시원 90명과 관련기관 및 협회 관계자 7명이 참석하여 축산물위생관리 추진현황 및 수입축산물의 검역·검사 등의 프로그램으로 명예감시원의 감시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되었다.

이 설명회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축산물명예감

시원의 감시활동에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림부에서 위촉한 소비자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령 및 가공기준·성분규격과 감시요령 등에 대한 질의·토의 형식으로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도 소비자가 직접 축산물의 안전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방위 축산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직원자녀 검역·검사 체험행사 가져



하여 검역·검사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홍보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이 공항만 검역, 축산물위생, 정밀검사 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홍보함으로써 검역원 가족 모두가 홍보대사가 되는 계기를 마련키 위해 계획되었다.

이날 행사는 수입 동·축산물의 검역, 국내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 첨단기술을 이용한 정밀 검사 현장에 대한 체험·실습과, 김포공항 입·출국자를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홍보캠페인으로 구성되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최근 직원 자녀를 서울 등촌동 소재 서울지원으로 초청

있다.

행사를 마친 한 검역원 직원자녀는 “국민건강을 위해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부모님

이 매우 자랑스러웠으며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는 친구들도 함께 왔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사)한국동물약품협회

박종명 한국동물약품기술연구소장 임명



(사)한국동물약품협회는 지난 10월 24일 열린 제6차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따라 협회 정관 제36조(연구소) 규정의 연구소 설립을 위한 사전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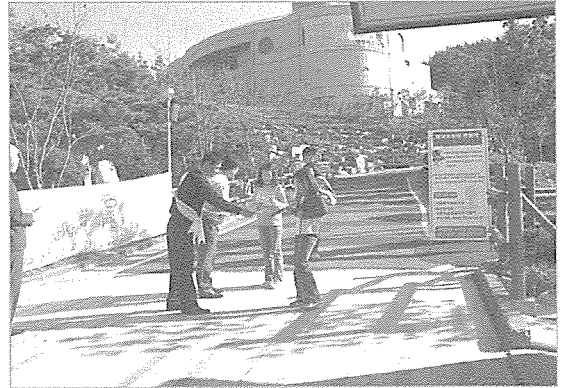
비와 품목신고 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11월 1일자로 박종명 연구소장을 임명했다.

박종명 연구소장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수의학박사), 포천중문의과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국립수의과대학검역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축산연구소

가금육 안전성 홍보 캠페인 실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면서 발병사례가 없는 국내에서도 닭·오리고기에 대한 소비위축이 현실화됨에 따라 가금육의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관련업계

의 어려움에 동참함은 물론 소비확산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축산연구소(소장 윤상기)에서는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15일동안 180여

명이 각 부서별 특색을 살려 가을 산행지·철새 도래지 및 연구소 인근 IC 등에서 관광객과 여행객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법과 아울러 닭·오리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캠페인을 벌였다.

특히, 캠페인용 홍보물을 통해 국민들은 현재 생산하고 있고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소비에 있어서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비자들과 관련업계에서는 언론 등의 과대보도 자제와 가금육의 안전성에 대한 적극

적인 소비홍보를 요구했으며, 가금육 소비와 관련하여서는 조리를 통해서 계속 먹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축산연구소는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가금육 안전성 홍보 캠페인을 계기로 국민 모두의 단합된 마음으로 슬기롭게 대처하고 유사증상이라도 발견 즉시 가축방역본부(1588-4060, 9060)나 지역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농협중앙회

1,000대 기업에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협조 요청

최근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 가금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가격이 하락하여 양계농가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는 대기업 등 매출액 기준 국내 1,000대 기업체 대표들에게 가금류 소비촉진을 당부하는 농협중앙회장 명의의 협조문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지난 11월 16일 밝혔다.

농협은 협조문서를 통해 각 기업체 구내식당 메뉴에 닭·오리고기, 계란요리를 확대해 줄 것과 기업체별로 가금산물 소비촉진행사를 실시해 줄 것, 연말연시 회식 및 선물로 닭·오리고기 관련제품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협은 국가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나라 10,000대 기업들이 가금류 소비촉진운동에 앞장서 준다면, 가금류 소비회복에 큰 도움이 되어 양계농민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협사료, 양계사료가격 5.3% 긴급 인하

농협사료(대표이사 남경우)는 11월 15일자로 육계, 산란계, 오리, 메추리사료 등 양계사료가격을 평균 5.3% 전격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농협사료의 이번 가격인하 조치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크게 고통받고 있는 양계농가들과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취지로 단행된 것이다.

농협사료는 최근 환율상승 및 원재료 가격인상으로 오히려 사료가격을 인상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인하를 단행하게 됐음을 설명했다.

일반 사료업체들도 양계사료 가격인하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이들 업체들까지 농협사료의 가격인하에 동참할 경우 양계농가들은 연간 560여억원의 생산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한국가금학회

신임 회장에 강창원 교수 선출



한국가금학회는 지난 11월 18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에서 제22차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 강창원 교수를 신임학회장을 선출했다.

신임 강창원 학회장은 건국대 축산대학을 졸업하고 뉴햄프셔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러트거스 대학교에서 영양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편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경상대 최양호 교수가 '닭에서 랩틴에 관한 연구'에 대한 초청특강을 시작으로 가금관련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신진가금학자로 건국대 주원돈 박사, 백

상태 박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이윤정 박사, 서울대 김덕경 박사 등이 차례로 논문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구두발표회에서는 '오골계의 기원과 유전적 다양성'이란 주제를 비롯해 11개 주제가 발표됐으며 포스터발표회에서는 '한국재래 닭의 난질에 관한 연구' 등 총 23개 포스터가 전시됐다.

한편 가금학회는 교육분야에는 하정기 교수(경상대), 봉사분야 박영인 이사장(한국자조금연구원), 행정분야 조병임 사무관(농림부)에게 공적상을, 이상진 부장(축산연구소)에게 학술상을, 김성권 박사(건국대)에게는 차세대 학술상을 수여했다.



한국축산경제연구원

현판식 개최



한국축산경제연구원(원장 정찬길)은 지난 11월 16일 박현출 농림부 축산국장, 김주수 전 농림부

차관, 조옥향 산유능력검정중앙회장, 정찬길 원장, 황민영 청와대농특위위원장, 송석우 농협 축산경제대표, 남호경 축단협회장, 최영열 대한양돈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들어갔다.

축산경제연구원은 앞으로 축산경영·경제·유통·환경·브랜드 등의 각종 정책에 대한 자문과 조사연구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 주소 :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90-182

축산신문사옥 4층

■ 전화 : (02)873-1997



한국소비자연맹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정광모)은 오는 12월 13일 본사 강당에서 제5차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5년도 제2차 도축장·도계장(125곳) 평가를 마치고, 평가위원회의 평가보

고서 검토 및 최종 결정을 통해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일시 : 2005. 12. 13(화) 17:00

■ 장소 : 한국소비자연맹 강당

■ 문의 : (02)795-8426 ☎

<HACCP작업장 등(축산물 및 사료) 지정현황>

(2005. 11. 14)

◆ 식육포장처리업

번호	업체명	적용품목	지정일	소재지
165	(주)영진에프에스	포장육(계육)	2005. 11. 09	충북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565-13
166	코코들	포장육(계육,오리육)	2005. 11. 15	울산 중구 반구동 773-6
167	(주)우림인티그레이션	포장육(계육)	2005. 11. 17	전북 김제시 금산면 용산리 296

◆ 사료공장

번호	업체명	적용품목	지정일	소재지
18	(주)농협사료 청주공장	고기소, 젖소, 돼지, 닭, 기타	2005. 11. 02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리 140-38
19	제일사료(주) 대전공장	고기소, 젖소, 돼지, 닭, 개, 어류, 기타	2005. 11. 02	대전 대덕구 대화동 40-36
20	(주)삼양사 천안사료공장	고기소, 젖소, 돼지, 닭, 개, 기타	2005. 11. 02	충남 천안시 성거읍 소우리 195
21	(주)삼양사 천안사료공장	돼지, 닭, 기타	2005. 11. 15	전북 김제시 만경읍 몽산리 106-26
22	대상팜스코(주) 중부공장	고기소, 젖소, 돼지, 닭, 개, 기타	2005. 11. 15	경기 안성시 미양면 계록리 273-4
23	대상팜스코(주) 호남공장	고기소, 젖소, 돼지, 닭, 개, 어류	2005. 11. 15	전북 정읍시 영파동 500-2
24	농협사료 황성공장	고기소, 젖소, 돼지, 닭, 개, 기타	2005. 11. 29	강원 황성군 황성읍 목계리 70-1